



이주희 동신대 총장, 여성 리더십 특강

동신대학교 이주희 총장이 '2025 나주시 여성대학'에서 특강을 통해 지역 여성들의 리더십 함양에 힘을 보탤다. (사진)

3일 동신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30분 나주시 농어업회소 2층 다목적실에서 '리더의 선택-품격과 책임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지역 사회에서 여성 리더가 갖춰야 할 핵심 자질과 우리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에 대해 소개했다.

이 총장은 "리더는 지켜내는 사람, 풀어주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자신의 욕구를 분별하고 공동체의 필요를 읽는 사람"이라며 "리더에게는 책임감, 일관성, 분별력, 열린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선택이 빚어내는 하나의 작품이며, 여러분의 선택이 곧 리더십이 되고, 어른다움이 될 것"이라는 강하고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대-LH '도시재생·정비 활성화 협약'

광주대학교와 LH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전남 LH참여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사진)

양 기관은 3일 오전 LH 광주전남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및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한 산·학 협력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LH참여 도시재생 사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 △LH참여 도시재생 사업 추진 중 '광주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의 현장실습 지원 등 도시재생 인력 양성 지원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진 광주대 총장은 "지역의 도시재생 속도가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지역 사학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대구 치맥페스티벌서 고향사랑실천 캠페인

찾아가는 현장 홍보 일환 전남 서포터즈 가입 발길

전라남도는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지난 2일 대구 치맥페스티벌 현장을 찾아 '전남 고향사랑실천 캠페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사진)

치맥페스티벌은 2013년 시작된 이후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누적 관람객을 유치하며, 대구를 대표하는 여름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대규모 축제에 참여해 전남 고향사랑 실천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탤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찬 대구경북호남향우회장과 김명선 포항호남향우회장을 비롯한 향우회원 10여명, 전남도 직원이 함께 참여해 고향사랑 서포터즈 가입과 기부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640여 개 전남도 할인가맹점 △남도장터 1만원 쿠폰 △JN투어 남도속박 1만원 할인 등 서포터즈에게 제공되는 실질적인 혜택이 소개되면서, 많은 관광객의 관심을 끌었다. 현장에

서는 가입 문의가 이어지며 전남에 대한 높은 관심을 체감케 했다.

축제장을 찾은 한 관광객은 "서포터즈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전남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며 "올여름 휴가는 전남에서 숙박과 음식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리며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주찬 대구경북호남향우회장은 "출향 향우로서 전남 고향사랑 실천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며 "고향사랑 기부 릴레이와 서포터즈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고향을 잊지 않고 응원해주는 서포터즈와 향우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는 7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2025 로컬콘텐츠펙스타' 등 대규모 행사에 지속참여해 고향사랑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서포터즈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공배달앱 '떡깨비' 3000원 할인 쿠폰 및 최다 추천인에게 떡깨비 100만원 상당 쿠폰을 지급하는 '1+1 가입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여대, '잠재의식향 상담사 자격증 교육'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부는 지난달 20일 학내 황룡관 2024강의실에서 '잠재의식향 상담사 자격증(2급) 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

3일 광주여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아로마테라피협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협회 관계자가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부를 직접 방문해 잠재의식향 상담사 자격증(2급) 과정 강의를 운영했다.

교육에서는 향기를 통한 감정·무의식 분석 기초 이론, 잠재의식향의 진단 방법 및 상담 실습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향기를 통해 감정을 분석하고 상담하는 방법이 인상 깊었고, 자격증 취득까지 도전할 수 있어서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며 "미용 분야에서 고객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의 진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병하 기자



호남대탈탈라스쿨,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호남대탈탈라스쿨의 컨소시엄 기관인 (사)에듀펀플러스가 지난 1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3일 호남대에 따르면 이번 표창은 농촌·도시지역의 교육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과 사회적기업 간 협업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에서의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최고 등급인 '탁월'을 달성했다. 이는 전남 도내 사회적기업 중 유일하게 2년 이상 '우수' 등급 이상을 유지한 기록이다.

이날 사단법인 에듀펀플러스 오승우 대표는 "이번 표창을 계기로 농촌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육군 31사단, 완도해경과 함께 불시 합동순찰 실시

육군 제31보병사단 햇불여단이 완도항 일대에서 밀입국을 예방하고 밀입국을 가장한 적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 완도해경 함께 불시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이날 불시 합동순찰은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한 밀입국을 예방하고 이를 가장한 적 침투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실시했으며 해안경계작전 능력 향상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합동순찰은 햇불여단 장보고대대 해안기동타격대와 완도해경 기동순찰대가 2대 팀을 편성해 제주도에서 완도항으로 입항하는 여객선을 대상으로 승객과 의식 물품을 면밀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밀입국 활동이 우려되는 부두, 차량 선착장, 여객선

터미널 일대에서는 합동 도보 순찰을 밀도 높게 실시했다.

합동순찰을 지휘한 김보성(중령) 장보고대대장은 "이번 합동순찰은 군·해경이 함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밀입국과 밀입국 가장 적 침투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부대는 완벽한 해안경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햇불여단은 이번 순찰에 앞서 지난달 2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완도해경과 사전 협조토의를 실시했으며, 이번 합동순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해안경계작전의 안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정준 기자

화순전대병원 안동구 팀장, 노동부장관 표창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안동구(사진) 안전관리팀장이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3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안 팀장은 2022년 7월부터 안전관리팀장을 맡아 병원 내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왔다.

또 △찾아가는 안전교육 △공사 전 위험성 평가 및 사전회의 △정기 순회 점검 △노사합동 점검 등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중대 재해 예방에 성과를 이끌어냈다.

안 팀장은 직원 제안제도 및 아차사고 신고제 운영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호구 지급, 금연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제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등 병원 내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도급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KOSHA-MS(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대한산업안전협회 강사 활동 등을 통해 조직 안팎의 안전 역량 강화에도 힘써 왔다.

특히 시설·전기·기계 유지보수 등 고위험 부서에 대한 집중 점검과 현장 소통을 통해 위험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병하 기자

조선대 조민수 연구생, '우수 논문상' 수상

대한기계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 조민수(사진) 학부 연구생이 최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대한기계학회 호남지회 2025년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부문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사진)

3일 조선대에 따르면 조 연구생은 "소형 가솔린 엔진에서 밀러 사이클의 EIVC 및 LIVC 전략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를 주제로, 흡기밸브 조작에 따른 성능 및 배기가스 배출 특성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지구온난화 및 환경문제로 인해 배기가스 저감기술 연구는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밀러 사이클은 후처리 장치 없이 흡기밸브 제어만으로 질소산화물(NOx)과 이산화탄소(CO2)를 줄일 수 있어, 최적의 운전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흡기밸브를 조작하여 흡기량 및 기계적 일을 정량화하고, 엔진 성능과 배출 특성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성능 저하 없이 배기가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전 조건을 도출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변 밸브 기술은 추가적인 하드웨어 없이 즉시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 경제적인 방법으로, 최적화를 통해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병하 기자

@jnlibo
전남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전남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